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석면관련 질환 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윤 간 우

연구기간 / 2009. 5-2009. 10

등록번호 / 보건분야-연구자료 연구원 2009-27-504

건설업의 경우, 대부분 수개월에서 짧게는 수일간의 작업 후 다른 건설현장으로 이동하는 특성 때문에 노출관리와 건강영향 조사가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 석면 함유 제품 중 건축자재가 가장 많아 석면 피해가 가장 심각한 업종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석면관련 질환 실태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발적 지원을 통해 건설 일용직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였고, 직접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건설업의 각 직종의 작업이 시간적·공간적으로 구분되지 않아 다양한 직종에서 석면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으로 추측되었다. 건물건설업 플랜트 128명, 건설업 319명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 2인 중 한 명이라도 석면폐증 및 흉막관이 발

견된다고 판독한 경우는 37명으로 유병률은 8.2%며, 이 중 석면폐증은 23명(5.1%), 흉막관은 8명(1.7%)에게서 발견되었다.

적합한 객담으로 판단되는 총 379명의 검체 중 객담 내 석면 소체 확인 의심 수는 65명이었다. 흉부방사선에서 석면관련 질환 판독자의 66.7%에서는 흉부 CT에서도 관찰되었다. 특수건강진단에서 'D1'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흉부 방사선상 석면폐증으로 판독되었고, 석면 노출 근거가 있는 23명이었으며 유병률은 5.1%였다.

한편, 건설일용직근로자의 잦은 이동과 짧은 현장 조사기간 때문에 사업주가 특수건강검진의 프로그램 관리자로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석면 노출 정보를 정확히 검진 기관에 제공할 수 없으며, 사업주가 검진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지원해 주지 않아 근로자는 검진을 기피하고 있었다. 건강관리수

첩을 이용한 석면관련 질환 관리의 경우,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검진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교육 및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없으며, 접근성이 떨어져 현재의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 기준으로는 많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이용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건설업 근로자 석면관련 질환 관리를 위한 대책으로 첫째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활용하여 고용기간이 짧고 이동이 잦은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정기검진을 제공하는 것이다.

석면과 관련된 특수건강 검진 시에는 석면노출 직종, 종사기간, 과거 흉부방사선 판

독 결과, 폐기능 검사 결과를 기입할 수 있는 수첩을 제공하여 검진기록의 유지 및 관리에 활용할 것이 제안되었다.

또,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판독임에도 경험과 입장에 따라 석면관련 폐질환의 판독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흉부방사선 검사로 석면관련성 폐질환을 진단하는 공통의 기준과 표준화된 판독지 개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생각되었다.

특수건강검진 기관을 대상으로 석면관련성 폐질환의 흉부방사선 판독과 관련된 워크숍 개최 및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제공 | 산업안전보건연구원